

# “남들이 안하는 우리만의 배구를 하자”



시애틀 김형실 감독이 지난 1일 흥국생명전에서 팀을 지휘하고 있다.

(KOVO 제공)

## 김형실 시애틀 감독의 '할아방 리더십'

‘지금의 위기 너희들끼리 극복해보라’ 경기 안 풀리자 자리 앉아 침묵 관전 대 역전극 벌이며 세트 가져오기도 “연습하는 거 60%만 나와도 된다 초심으로 후회 없는 플레이를 해야”

김형실 시애틀 감독이 지난 1일 흥국생명과의 경기 도중 코트 옆 감독석에서 물러나 '의자에 앉았다'. 현장에서 선수들을 진두 지휘하는 프로배구 감독이 경기 중 자리에 앉아 경기를 관망하는, 다소 생소한 풍경이었다.

앞서 2개 세트를 내준 시애틀 감독은 김 감독의 “우리 플레이를 하라”는 지시를 전술로 보여주지 못했다. 흥국생명 신인 정윤주의 예측불허 공격에 잇따라 실점하고, 서브 범실을 쏟아내며 조급해진 것이다. 1,2세트를 허망하게 내주고 3세트마저 0-6으로 최악의 스타트를 끊자, 김 감독은 의자에 앉아 버렸다.

김 감독은 “포기하고 나오라는 뜻이 아니었다. ‘너희들끼리 한번 극복해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선수들은 경기 중 감독의 말 한 마디 한 마디는 물론 서 있는 위치까지 신경 쓰기 마련이다. “자신만의 플레이”를 위해 경기 흐름을 바꾸려는 무언의 지시이자 비장의 수였다.

그 마음이 통했는지, 시애틀 감독은 25-23 대역전극을 펼치며 3세트를 가져올 수 있었다.

백전노장 김 감독의 ‘할아방’ 리더십은 때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난다. 경기 중 실수를 질책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라’고 보듬는 것은 물론, 선수 한명 한명과 꾸준히 면담 시간을 갖고 위로와 격려를 전하기도 한다. 김 감독은 “지도자는 참 고독하고 힘든 직업”이라며 웃었다.

승점만 1점만을 쟁긴 채 2라운드를 마무리한 아쉬운 상황에서 김 감독은 냉정했다. 그는 “모든 건 감독 책임이다. 범실 자체는 줄어들고 경기력도 좋아지고 있지만, 경기 후반 뒷심부족으로 찬스를 놓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되짚었다.

“팬들의 기대치와 관심이 커지니 선수들도 이기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커지고, 감정이 격해지면서 움직임이 둔해지고 있어요. 아직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선수들에게 ‘초심으로 돌아가자’, ‘떨안하게 하자’고 매일 강조하고 있어요.”

김 감독이 바라는 플레이는 한결같다. 자신감과 의욕적인 플레이, 후회없는 플레이를 하는 것이다.

“연습했던 것의 60%만 나와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2라운드에서는 그저 40% 정도만 보여준 것 같아요. 경기 내용만 보면 잘했지만, 스코어상으로는 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뒷심이 부족한 순간을 한 번에 끝내줄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한 게 크죠.”

교체 선수 자원마저 풍족치 않은 시애틀 감독은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 김 감독은 최근 박은서와 구술, 서재원 등 주전 경험이 적은 선수들을 깜짝 주전에 올리는 등 변화를 주고 있다. 1일 흥국생명전에서도 컨디션이 좋지 않은 박경현을 대신해 박은서가 출전, 11득점을 폭발하며 가능성을 보였다.

김 감독은 “선수 컨디션에 따라 지금보다 더 유동적으로 선수들을 기용할 생각이다. 경기 경험도 쌓으면서 자신감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3라운드는 2라운드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 내다봤다. 팀 간 전력 분석이 충분히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김 감독은 “우리는 젊은 패기로 신바람나는 배구를 한다는 원칙이 서 있다”고 말한다.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 덕에 팬들도 많이 늘어났으며, 미디어에서도 인정 받게 됐다. 김 감독은 “남이 안 하는 배구를 하려고 한다. 성격도 꼰대인데 다른 6개 구단과 똑같이 해 봐야 무슨 소용이겠냐”며 “저도 나이 먹은 배구인으로서 최대한 선수들에게 베풀고 가겠다는 마음이다. 다음 3라운드에서도 배구에 올인 한다는 마음으로 좋은 경기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KIA 이우성 “감사했던 시즌, 자신감으로 내년 준비”

올 시즌 KIA 타이거즈의 외야는 변화무쌍한 자리였다. 우익수 최원준이 단일 시즌 최다 수비 이닝을 장식했지만 중견수를 중심으로 많은 선수가 외야를 오갔다.

이우성도 그중 한 명이었다. 65경기에 나온 이우성은 200타석에 들어서 0.200의 타율에 그쳤다. 기대했던 한방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우성은 밝은 표정으로 시즌을 종료했고, 마무리 캠프에서도 팀의 활력소 역할을 하면서 ‘MVP’ 소리도 들었다.

수비가 이우성을 바꿨다.

타격을 기대하고 영입했던 선수인 만큼 아이러니한 결과지만 올 시즌 이우성은 수비에서 눈길을 끌었다. 10월에는 꾸준히 그라운드에서 오르면서 안정감을 보여줬다. ‘생각의 전환’이 만든 결과다.

이우성은 “제가 못해서 기회를 많이 못 받았는데 코치님들이 팀을 위해서는 방망이가 아닌 수비도 있다고 하셨다. 수비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셨다”며 “방망이 성적은 안 좋았지만 그렇다고 쳐져 있는 게 아니라 팀에 도움이 되자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자신감을 생겼다. 수비, 야구장 나갈 때 생각이 감사할 정도로 달라졌다”고 말했다.

또 “예전에는 1점 차면 긴장도 많이 하고 ‘공이 나한테 오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도 했는데 여유가 생겼다”며 “코치님들, 친구·후배들, 투수들이 고맙다고 덕담해주자 자신감이 생겼다. 좋은 수비를 하다 보니 자세가 더 낮아지고 스타트도 한발 빠르게 하고 과감하게 수비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우성

물론 수비 발전에서 그칠 게 아니라 타격에서도 기대했던 역할을 해줘야 한다. 이우성은 타격 발전을 위한 첫 단계로 마음을 바꿨다. 시즌 초반과 달랐던 타격, 기술이 아닌 마음을 바꾸면서 한층 매서워졌다.

이우성은 “타격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 많은 생각을 했는데 답을 찾지 못해 불안했다. 2군에서는 손이 찢어질 정도로 타격 연습을 하기도 했다”며 “불안해서 훈련을 많이 하기도 했는데 불안해도 목표 개수 채우면 ‘들어가서 쉬자, 스트레스 받지 말자’고 마음 먹었다. 코치님들과 티타임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 결과가 안 좋어도 다음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다 보니 잘 맞는 타구도 나오고 잘할 수 있다는 자신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에게는 ‘감사함’이라는 또 다른 마음도 있었다. 이우성은 이번 겨울 오랜 시간의 연애를 끝내고 결혼식을 올린다.

이우성은 “그동안은 내 스스로 납득이 안 돼서 화가 많이 났었다.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는 한 경기 한 경기 나가는 게 너무 감사했다. 혼자서 아닌 둘이니까 더 간절하게 되고, 생각도 깊어지게 됐다. 와이프 팀 사람에게 감사하고 더 잘하고 싶다”고 웃었다.

감사한 마음과 자신감으로 시즌을 마무리한 그는 화끈한 팬서비스로도 최근 큰 박수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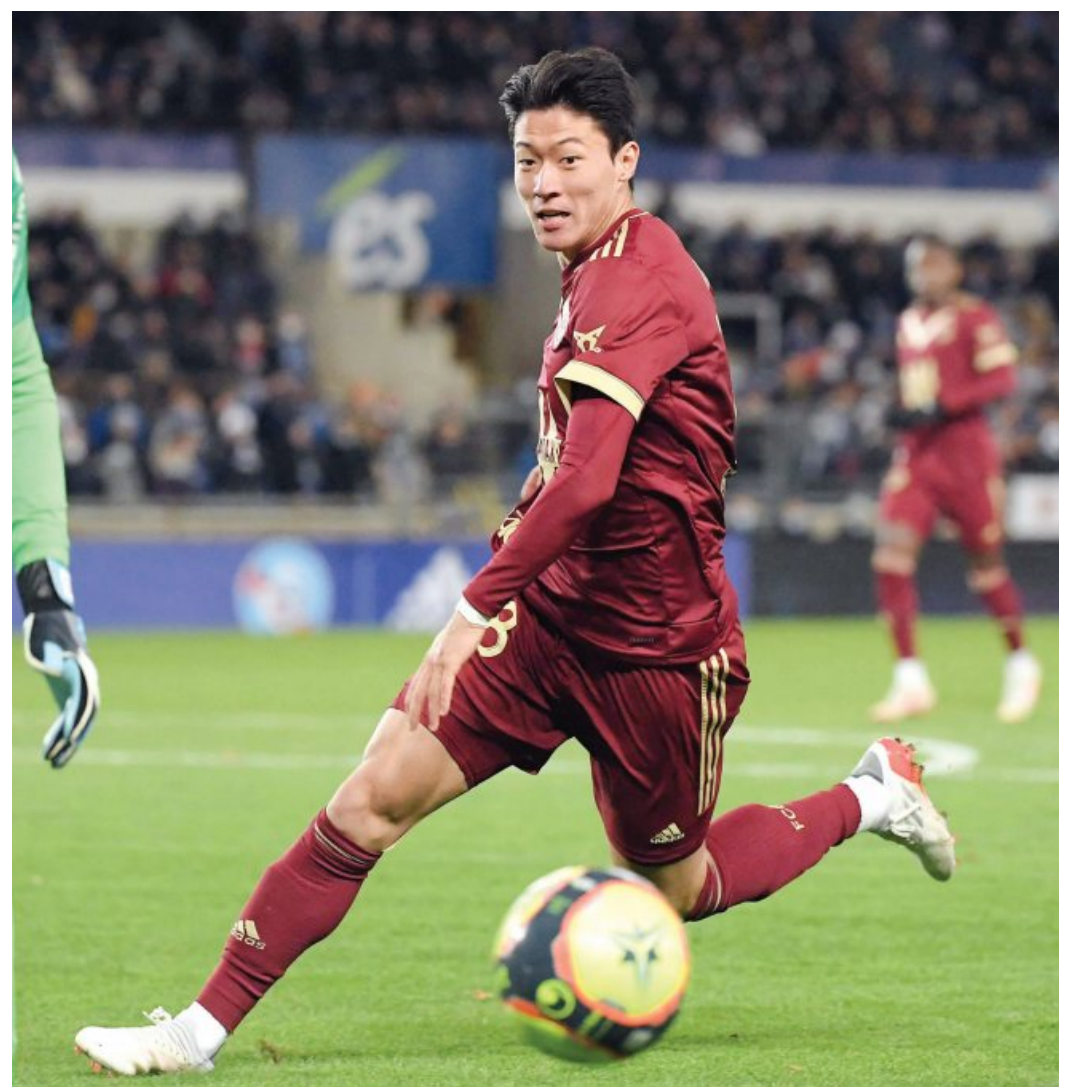
이우성은 랜선 팬미팅 행사에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영화로 분장을 한 채, 재치있는 진행을 선보여 화제를 모았다.

그는 “이왕 하는 것 재미있게 하고 싶었다. 이런 것 할 때 스트레스받는 것도 없고, 팬들이 재미있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 4년 1군에서 244경기를 소화하면서 경험도 더해진 이우성. 마무리까지 좋았기 때문에 내년 시즌을 준비하는 마음도 가볍다.

이우성은 “1군에서 경기 된 게 이제 4년 된다. 덕아웃에 앉아 있기도 하고 대타로도 나가고 대수비로도 나가보고, 이제 적응은 끝났다. 감사하게도 시즌 후반에 계속 꾸준히 나가면서 타석도 더 많이 들어서고, 장타도 나왔다. 감사한 마음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1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스타드 드 라 메노에서 열린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 16라운드 스트라스부르 대 지롱댕 보르도의 경기에서 보르도의 황의조(29)가 상대 선수들과 볼을 다투고 있다. 그는 이날 선발 출전해 70분을 뛰며 리그 5호 골을 넣었다.

/연합뉴스

## 광주FC, 내일 안방에서 2021시즌 폐막전

광주FC가 안방에서 아쉬운 2021시즌 폐막전을 치른다.

광주는 4일 오후 3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인천 유나이티드와 K리그1 38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길고 험난했던 올 시즌의 마지막 경기다.

폐막전을 앞둔 광주의 분위기는 무겁다.

광주는 지난 37라운드 성남전 0-1패배와 함께 K리그1 잔류라는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열악한 환경에도 최선을 다하는 승부를 펼쳤지만 현실의 벽에 막혀 2년 만에 K리그2로 내려가게 됐다.

진한 아쉬움 속에서도 선수들은 스피이크 끈을 다시 조여 냈다. 홈팬들에게 승리로 감사의 인사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광주는 ‘엄브라더스’ 엄원상과 엄지성을 비롯해 김중우, 헤이스, 허을 등 강력한 공격진을 내세워 골사냥에 나선다. 이찬동, 이순민, 한희원이 적극

적인 중원 압박과 투지로 방어선을 구축하고 공격도 이어줄 전망이다.

‘잔류왕’으로 통했던 인천은 이번 시즌에는 여유롭게 잔류를 확정했다.

무고사와 네게바, 아길라르 등 외국인 선수들의 맹활약 속 오재석, 김광석, 정혁 등 베테랑 선수들의 경험을 묶어 승점 46으로 현재 8위에 올라있다. 순위는 인천이 앞서 있지만 올 시즌 전적에서는 광주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3번의 맞대결에서 광주가 2승 1패를 기록했다. 특히 2승 모두 홈에서 만들었다. 광주는 기세를 이어 빠른 선제 득점으로 인천을 흔들고 조직력으로 승리를 지키겠다는 각오다.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진 광주는 올 시즌 뜨거운 응원을 보내준 팬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다. 먼저 추운 날씨에도 경기장을 찾는 팬들을 위해

입장권 전원에 핫팩을 선물한다. 또 광주축구전용구장 2번 게이트 입구에서 광주FC APP 다운로드 인증 이벤트를 열고 맥북, 갤럭시 워치, 아이폰13 등을 증정할 계획이다.

‘직관 인증샷’ 이벤트도 진행된다. 노란색 의상을 입고 찍은 인증샷을 ‘카카오TV 광주FC’로 전송하면 추첨을 통해 광주FC 유니폼, MD상품 등을 지급한다. 구역별 경품 이벤트를 통해 광주패밀리랜드 대관람차 이용권, SPT수중재활센터 이용권 등도 선분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구단주인 이용섭 광주시장이 선수단과 팬들을 위한 ‘선물’을 안겨 줄지도 관심사다.

이용섭 시장은 최종전을 직접 관람하며 선수단을 격려하고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할 계획이다. 2부리그에서 새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만큼 광주가 위기를 넘고 진정한 시민구단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구단주가 희망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황의조, 부상 복귀 시즌 5호골 폭발

프랑스 리그1, 보르도는 2-5 패배

황의조(29)가 부상 복귀 후 두 경기 만에 득점 포를 가동했으나, 소속팀인 프랑스 프로축구 지롱댕 보르도의 완패를 막지 못했다.

보르도는 2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스타드 드 라 메노에서 열린 2021-2022 프랑스 리그1 1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2-5로 완패했다.

황의조는 이날 선발 출전해 후반 25분 음바에 니앙과 교체 아웃될 때까지 70분을 뛰며 자신의 리그 5호 골을 터뜨렸다.

발목과 햄스트링 부상으로 한동안 결장하다 브레스트와 15라운드에 후반 교체 투입되며 돌아온 그는 이날 복귀 후 첫 골을 넣으며 팀 내 최다 득점자의 면모를 뽐냈지만, 패배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보르도는 전반 7분 황의조의 선제골로 기분 좋

게 출발했다.

야신 아들이라 왼쪽 측면에서 오른발로 올린 크로스에서 황의조가 머리를 가져다 대 골대를 출렁였다.

하지만 이내 스트라스부르의 반격이 시작됐다. 스트라스부르는 전반 22분 아드리앵 토마송의 헤딩 동점골로 균형을 맞춰고, 전반 43분에는 케빈 가메이로의 페널티킥 역전골로 2-1을 만들었다.

리드를 잡은 스트라스부르는 전반 추가시간 뒤 도비 아조르크의 추가골, 후반 3분 리미트리에 나르 골까지 더해 단숨에 4-1로 달아났다.

보르도는 후반 12분 알베르트 엘리스의 만회골로 추격했지만, 스트라스부르 아조르크가 후반 20분 멀티골을 완성하면서 3골 차 패배를 떠안았다. /연합뉴스